

1. 아버지여

바른 기도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와 관련 하여 중요한 핵심 두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는 이 두가지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로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는 육신의 부모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시작하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친밀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기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 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 시작하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것에는 나의 간청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을 기도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 두가지는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입니다. 2절 하반절이 '하나님의 필요'인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며, 세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필요와 관련해서 구해야 할 세가지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 세 번째는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나의 필요 세가지를 잘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임을 압니다.

순모임 질문 (1월 21일 설교)

- 1) 이번 주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2) 8절의 '강령함을 인하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 3)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4) 이번 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 보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1.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월-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 2. 2024년 표어 -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 3. 젊은이예배 오픈 - 3부 젊은이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 3부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 4. 성찬식 - 다음주는 성찬주일입니다.
- 5.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방법 : 사무실 신청 혹은 전화 신청
- 6. 예수전도단 직장인 훈련학교(BDTS) 신청 - 용인/화성/분당권 성도들을 위한 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개강 : 3월중 *문의 : 사무실
- 7.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 바이올린, 첼로, 플룻, 피아노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 시간 : 토 오전 10시 (악기 무상 대여)
- 8. 독서캠프 - 이번 주간(23일~27일)에 교회학교 아이들의 독서캠프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9. 예배 시청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교지 소식

송중훈 선교사

홍콩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광동성 심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천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